

# 제 1 교시 미니언대 국어 분석(보기편)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수능)

<보 기>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높은 용’이 ‘선잠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있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보기: 보기를 봤을 때 면앙우주가 긍정의 공간이며, 수양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고, 자연물에 인간적 부분을 부여한다고 한다.

-> 아무리 독해가 안되더라도 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독해를 하고, 지문을 곧바로 가지 않고 선지로 가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 선지의 앞부분은 아직 지문을 읽기 전이므로 뒷부분을 관조한다.

- ①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보기와 잘 맞는 듯?
- ② 이상을 펼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수양, 이상 등의 느낌과 ‘조바심’의 부정적 느낌 정도만 잡아 주면 된다. 분명 보기에는 면앙우주는 긍정적이고, 이상을 표출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조바심을 왜 느끼지...? 정도면 충분하다.
- ④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보기에서 작가는 자연을 긍정하는데 선지에 자연에서 교훈을 얻는 듯한 느낌이다.
- ③ <보기> 복붙이다.
- ⑤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 보기에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으니 자연끼리의 합일도 어느 정도 허용가능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가장 보기와의 모순이 있어보이는 ②번 선지부터 지문과의 비교를 통해 정오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면 가장 의심스러웠던 ②번이 곧바로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기>는 지문의 이해를 돕는 역할뿐 아니라 문제 풀이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또한 잘 활용한다면 시간 단축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선지 보는 순서를 정해줄 수 있을 뿐 <보기>만으로 100퍼센트의 답을 확정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며 조금 더 <보기>에 집중하며 다른 문제들을 보자.

2번부터는 핵심 선지만 각주를 달겠습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8-6)

<보 기>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데 더 관심을 둔다. 또 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 ① ‘고무신 짝의 논리’가 ‘액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 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 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 보기: 큰 산에는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예전의 가치: 남을 배려, 공동체의 이익, 주술적인 사고방식  
 현대적 가치: 자신의 안위, 개인의 이익,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혼재되어있는 상황 정도로 독해하면 될 듯 싶다.

- ⑤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 > <보기>에 따르면 현대의 가치인 합리적인 자세와 예전의 가치인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다.  
 + ④번 선지의 경우는 혼재이나 ⑤번은 두 개의 성질을 잘못 연결해 놓았다.(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이 새로운 가치관을 꾸미는데 남을 배려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이 아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8수능)

<보 기>

18세기의 선비인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사씨남정기 후서」를 썼다.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네.”라는 김시습의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 ①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단 이슬’과 같은 물로써 치료된다는 설정에서, 유 한림의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제시된 바와 조용하여 ‘여승’ 일행이 사 씨를 찾은 장면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므로 괴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겠군.
- ⑤ 유 한림에게 갖은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샘에 엮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그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⑤ 유 한림에게 갖은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샘에 엮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그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보기>에서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은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변한 것은 실제의 일이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지문으로 돌아가면 된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8수능)

<보 기>

금기란 어떤 대상을 꺼리거나 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금기를 위반하면 그 대상에 의해 공동체 혹은 그 구성원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금기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금기와 그 대상에 대한 추측은 구전의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어 구성원들 간에 회자 된다. 이를 통해 금기와 금기의 대상이 환기하는 의미는 세대를 거쳐 전달됨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 간에 공동체의 체험을 공유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 ① ‘짜그락거리는 ‘조무래기들’을 말리던 어른들이 그 이유를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였던 것은, 금기가 설정된 근본적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② ‘늘그막의 아낙네들’이 아이들에게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금기를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그네들’이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고 ‘귀땀’을 해주는 행위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 금기의 대상에 대한 추측이 은밀하게 전파되는 정황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아무리 무더위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한 것은, 금기를 위반한 ‘나가 자신에게 닥칠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겠군.
- ⑤ ‘재산불이’를 잃은 듯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공동체에서 공유되던 금기에 관련된 일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④ 금기를 위반한 ‘나가 자신에게 닥칠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겠군.

-> <보기>를 보면 공동체 혹은 그 구성원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해 두려움에 금기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했을 뿐 금기를 위반했을 때의 어른들의 처벌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5. <보기>를 참고할 때,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 ① 작가에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독자를 사로잡는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②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자서전을 쓰라고 ‘반말 투로’ 작가를 ‘억박’지르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에게 아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⑤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들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삶을 미화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③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보기> 마지막 문단에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다.

h